10.15686/fkl.2021..54.177 OPEN ACCESS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연대
—『여성지우』와 엄흥섭을 중심으로

김윤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서론
2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여성지우』의 기획
3 여성들의 「우리 오빠와 화로」 다시 쓰기
4 ‘평이’를 부르는 누나와 오마니들의 연대
5 결론

이 글은 잡지 『여성지우』와 1930년대 전반기 엄흥섭의 문학적 실천을 살핀다. 엄흥섭이 편집에 참여하기 시작한 제2권 제1호(1930.2)부터 『여성지우』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독자 투고란을 대폭 늘리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들을 선보인다. 이러한 『여성지우』의 기획에 여성 독자들은 뜨겁게 호응했으며 여성들이 주체가 된 새로운 문학을 꿈꾸었다. 특히 제2권 제2호(1930.4)의 〈여류문단〉란에 실린 여성들의 시는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조선지광』, 1929.2)를 전유한 것으로서, 여성이 겪는 힘겨운 현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여성지우』의 기획에서 보였던,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은 1930년대 전반기 엄흥섭의 소설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이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오마니'형 인물의 형상화로 나타난다. 특히 오마니형 인물이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으로 1934년 아동잡지 『별나라』에 게재된 엄흥섭의 소설 「평이」를 주목해볼 수 있다. 「우리 오빠와 화로」와 유사한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는 듯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오빠의 그림자는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 「평이」는 배달을 하다 다친 동생에게 보내는, 동생 자신의 몸을 잘 돌보라는 당부와, 동생의 다른 일자리를 위해 오마니들과 소통해보겠노라는 누나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카프 출신 문인들의 전향이 가시화되며 프로문학이 전환기에 놓여 있던 1934년, 엄흥섭은 「우리 오빠와 화로」를 연상시키는 소설 「평이」를 발표함으로써 카프가 가장 대중적이었던 시기를 소환하는 한편, 민중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여성지우』의 기획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엄흥섭의 소설은 힘겨운 삶을 겪어내던 독자들이 서로의 취약성에 공감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국문핵심어: 엄흥섭, 『여성지우』, 『별나라』, 여성 독자, 여성 노동자, 오마니, 취약성, 「평이」

1 서론

이 글은 그동안 주변부 작가로 인식되어 왔던 소설가 엄흥섭의 1930년대 전반기 문학적 실천에 주목한다. 엄흥섭에 관한 초기 연구는 카프 지도부를 비판했던 『군기』 사건에 가담하여 카프에서 제명되었으나 민중의 현실을 핍진하게 그려내며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했던 그의 사상적 노선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1] 이후 엄흥섭의 아동극 「소년 구루마꾼」에 주목한 연구,[2] 엄흥섭의 소설을 중심에 두고 해방기 귀환 서사를 조명한 연구,[3] 출판사 중앙인서관에서의 엄흥섭의 활동에 주목한 연구[4] 등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오랜 시간 주변부 작가로 간주되어 왔던 엄흥섭의 행적은 아직 조명 받지 못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예시로 엄흥섭의 『여성지우』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엄흥섭의 작가 연보에서는 그가 1929년 출간된 잡지 『여성지우』(女性之友)에서 편집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지만 작품 연보에서는 해당 잡지에 게재되었던 엄흥섭의 글 전부가 실린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엄흥섭이 『여성지우』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실린 작품의 성격은 어떠한지, 이러한 활동이 이후 엄

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작가」,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1990, 166-190쪽; 박진숙, 「엄흥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6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99-114쪽; 이호규, 「엄흥섭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선애, 「엄흥섭 소설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봉범, 「엄흥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형봉, 「엄흥섭 소설 연구-작품 경향의 변모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장명득, 「엄흥섭 소설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 손증상,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少年 구루마꾼〉의 기획」, 『한국극예술연구』 제4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4, 35-62쪽.

3 김윤진, 「해방기 엄흥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제60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405-444쪽; 이승윤, 「엄흥섭 소설의 변모양상과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귀환일기」와 「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171-195쪽; 등천, 「해방 직후 귀환서사에 나타난 여성 귀환자 연구-엄흥섭과 손소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377-409쪽.

4 장문석, 「출판사 중앙인서관과 조선어문 출판물 간행」, 『한국학논집』 제8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209-264쪽.

흥섭의 작품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엄흥섭의 『여성지우』 활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여성지우』 잡지에 대한 본격적 조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정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여성지우』 제2권 제3호에 실린 김영팔의 희곡 「뜻 잇는 女性」에 대한 연구[5]가 이루어졌고, 최근 이근화의 연구에서 비슷한 시기 발행된 다른 여성잡지들과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6] 이를 제외하면 『여성지우』가 주목받은 일은 거의 없었다.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에 제1권 제1호(1929.1 발간), 제1권 제2호(1929.2 발간), 제1권 제3호(1929.3 발간), 제2권 제1호(1930.2 발간)[7], 제2권 제2호(1930.4 발간), 제2권 제3호(1930.6 발간)가 실리면서 현재 총 6권이 전해져오고 있는 『여성지우』는 당대 기사에 따르면 1930년 10월호까지 발간되어 오다가 잡지사 업무 확장을 위해 인사동으로 재이주하면서 잡지의 이름을 『女性』으로 개제하고 1930년 11월호를 속간했다고 한다.[8]

엄흥섭은 '1주년 기념 특집호'인 『여성지우』 제2권 제1호(1930.2 발간)부터 편집에 참여했다. 『여성지우』에서 엄흥섭의 역할은 그 시작부터 결코 작지 않았으리라고 추정되는데, 1주년 기념 사원 소개 페이지에서 엄흥섭의 사진을 중앙

5 박명진, 「김영팔의 번안희곡 〈뜻 잇는 女性〉」,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430-442쪽.

6 이근화(2021)는 『여성지우』에는 부인 해방론 관련 논설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어, 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 해방 문제의 결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근화,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 해방의 문제-『현대부인』(1928), 『여성지우』(1929), 『여인』(1932)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70호, 우리어문학회, 2021, 100쪽.

7 본고가 접한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4권에 수록된 여성지우 제2권 제1호는 162쪽까지만 전하고 있다. 이에 판권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동아일보』 1930년 2월 26일 기사에서 여성지우 1주년 기념 특집호가 1930년 2월 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성지우』 영인본 해제에서도 1주년 기념 특집호가 1930년 2월에 발행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혜수, 「여성잡지 영인본 해제: 『女性之友』 창간호~제1-3호, 제2-1호~제2-3호」,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3권, 소명출판, 2014, 25쪽; 「신간소개」, 『동아일보』, 1930.2.26.

8 신혜수, 앞의 글, 25쪽; 「잡지소식」, 『동아일보』, 1930.10.21.



그림1.
『여성지우』의 사원 소개 사진.
중앙은 편집국 엄흥섭.
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주간 김윤걸, 편집국 최경혜,
편집국 김철, 영업국 안규흠,
영업국 전치의, 경리부장 김성구.

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9]

『여성지우』에서의 엄흥섭의 위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는 『여성지우』 제2권 제2호에 실린 민병휘의 편지이다. "엄兄 신춘수필을 써 달라신 부탁을 받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나갔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1930년 3월 12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 편지에서 민병휘는 임화의 시 「봄이 오는구나」를 읽고 받은 감동에 관해 서술한다.[10] 임화의 시 「봄이 오는구나」와 엄흥섭의 시 「새거리로」는 『조선문예』 제1호(1929.5)에 나란히 실려 있다.[11] 민병휘는 계속 "엄兄"을

9 본고에서 사용한 『여성지우』 관련 이미지들의 출처는 현담문고 웹사이트(http://www.adanmungo.org)이다.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3권·제24권에 실린 『여성지우』 제1권 제1호, 제1권 제2호, 제1권 제3호, 제2권 제1호, 제2권 제2호, 제2권 제3호가 이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되고 있다.

10 민병휘, 「보고십흔同志들」, 『여성지우』 제2권 제2호, 1930.4, 84-86쪽.

11 기존의 논문과 연보에서는 이 시의 제목을 "세 거리로", "세거리로" 등으로 자주 표기해왔다(이희환, 「엄흥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한국학연구』 제12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171쪽; 박진숙, 「엄흥섭 작품 연보」,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6』, 민음사, 2006, 343쪽; 이승윤 편, 「작가 연보」, 『엄흥섭 선집』, 현대문학, 2010, 406쪽 등). 그러나 『조선문예』 제1호의

부르며 편지를 적고 있는데, 편집진 중 엄씨가 엄흥섭이 유일하다는 점, 민병휘와 엄흥섭이 『군기』 사건에 함께 관계되었다는 점을 떠올려본다면 편지의 수신자는 엄흥섭일 것으로 추정된다. 엄흥섭에게 보낸 민병휘의 편지가 잡지 지면에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보면 『여성지우』를 대표하는 편집진으로서 엄흥섭의 역할을 실감할 수 있다.

『여성지우』에서 엄흥섭은 원고 청탁을 비롯한 기획의 제반 업무를 맡았으며 자신이 쓴 다양한 성격의 글을 싣기도 하였다. 『여성지우』의 제1권 제3호(1929.3)에는 엄흥섭의 소설 「어엽분착각-엇던여학생의수기」(110-120쪽)가 실렸으며, 편집에 참여하기 시작한 제2권 제1호(1930.2)에서는 인터뷰 형식의 기사 「처녀직공방문기」(106쪽 및 114-115쪽), 소설 「선물」(147-152쪽)이 각각 '흥섭', '엄흥섭'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다. 제2권 제2호(1930.4)에서는 논설 성격의 글 「지식계급여성들에게」(25-27쪽), 소설 「다러나는신부」(150-152쪽)가 'HS'라는 이름으로 실렸는데, 편집진들의 이니셜로 짐작해보았을 때 이 또한 엄흥섭의 글들일 가능성이 높다.[12]

이렇듯 엄흥섭이 활발히 관여했던 잡지 『여성지우』를 중심에 놓고, 본고는 1930년대 전반기에 작가와 독자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문학과 연대에 대한 이채로운 구상들에 대하여 조명해보고자 한다. 『여성지우』와 엄흥섭의 문학적 실천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를 연상시키는 두 번의 흥미로운 장면들을 마주치게 된다.

2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여성지우』의 기획

『여성지우』 제2권 제1호의 「社告」에서는 엄흥섭이 조선여성사에 입사했음을 알려줌과 동시에 새로 입사한 사람들과 함께 더 충실한 편집을 선보일 것이라는 잡

목차와 본문에는 '새거리로'로 적혀 있다.

12 박진숙(2006)의 엄흥섭 작품 연보에 따르면 「지식계급여성들에게」는 엄흥섭의 수필로 분류된다. 박진숙, 「엄흥섭 작품 연보」, 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6』, 민음사, 2006, 343쪽. 작품 연보에는 「지식계급여성들에게」의 발표 시기가 1930년 1월로 적혀 있다.

지의 포부를 함께 적고 있다. 실제로 창간 1주년을 맞은『여성지우』는 이전 호보다 더욱 야심찬 기획을 선보인다. 일례로 이전 호들이 주로 여학생들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권 제1호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취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글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흥섭(엄흥섭)의 「처녀직공방문기」(106쪽 및 114-115쪽), 김말봉의 「여기자생활의 속임없는 고백」(120-122쪽) 등이 이러한 기획에 속하며, 무엇보다도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24-36쪽)이라는 기획란에서는 다음 열세 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각각의 소제목과 함께 담았다. 이를 현대어로 바꾸어 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련번호	제목	말하는 이
1	마음 못 놓는 내 생활	보모 김애주
2	욕을 먹을 때에는	교환수 김○순
3	바늘방석에 앉았다	동아부인상회 CR
4	집게로 그놈의 손목을	여차장 김○남
5	운전수도 「밥」 때문에	운전수 이정옥 여사
6	가여운 생명	간호부 김달선
7	밤잠 못 자는 우리 직업	여배우 석금성
8	살고도 죽은 목숨	「오모니」 오기선
9	할 수 없는 식모생활	모 여관식모 조선이
10	살아가노라면	행랑어멈 최씨
11	조그만 칼이 나의 무기	떡장사 고금순 노파
12	보고 못 먹는 그림에 떡	은행원 HW
13	설상가상으로	기름장사 채씨

주목할 점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자의 시선이다. 이 기사는 다소 특이한 가상적 도입부로 시작되는데,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기자의 귀에 별안간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이윽고 전쟁터에 도착하게 된다. 전쟁터에 있는 이들은 여

장군(女將軍)들로서 밥과 생존을 위해 직업 전선에 나선 여성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전사와 장군의 형상으로 그려낸『여성지우』기획의 특이성은 4개월 뒤 발간된 1930년 6월『별건곤』제5권 제5호와 비교해볼 때 더 분명해진다.

『별건곤』제5권 제5호의 기획「생활전선에 나선 직업부인순례-그들의 생활과 포부」에서는 "군청고원(郡廳雇員)", "부인양복점", "여운전수", "약제사", "공장기사", "은행원"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13]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대체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으로서 각 분야를 개척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처럼『별건곤』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낯선' 직업들에 집중하여 개개인의 속내를 들어보는 형식을 취했다면,『여성지우』는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과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직업을 같은 기획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여성지우』는 보모, 전화 교환수, 판매원, 차장, 운전사, 간호사, 배우, 오마니[14], 식모, 행랑어멈, 떡장사, 은행원, 기름장사 등의 직업을 '전장에서 싸우는 장군들'이라는 서사 안에 함께 놓으며 이들이 일하는 여성으로서 공통적으로 겪는 고충에 초점을 맞춘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갖가지 희롱을 당하며 오직 밥과 생존을 위해 일한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노동 현장에서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되고 있다.

『여성지우』의 기획이 지닌 특유의 현장성은 사진 활용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인터뷰 내용과 함께 여성들의 얼굴사진을 함께 실었던『별건곤』과 달리,『여성지우』는 여성들의 노동 현장을 원경에서 찍은 전신사진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 현장의 현장성과 직업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한국 최초의 여성 택시운전사로 알려진 이정옥이『여성지우』와『별건

13 「생활전선에 나선 직업부인순례-그들의 생활과 포부」,『별건곤』제5권 제5호, 1930.6, 30-36쪽.

14 오마니(오모니/조선어멈)는 일본인 가정에서 남의집살이를 했던 조선인 여성 노동자를 일컫는다. 소영현,「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식민지기 '남의집살이' 여성의 노동을 중심으로」,『아시아여성연구』제5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59쪽.

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방식을 보면, 『별건곤』이 얼굴사진을 게재한 반면(그림 2) 『여성지우』에서는 영업용 자동차에 탄 이정옥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그림 3)을 포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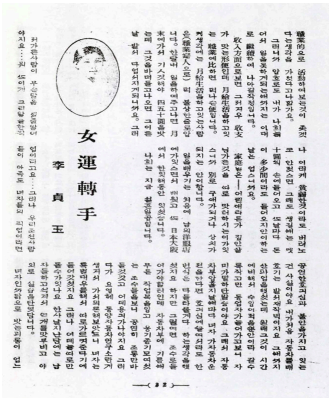

女運轉手
李貞玉

그림 2. 『별건곤』 제5권 제5호(1930.6) 에서 운전사 이정옥을 그려낸 방식


運轉手로 밥」 채문에
李貞玉女史

그림 3. 『여성지우』 제2권 제1호(1930.2) 에서 운전사 이정옥을 그려낸 방식


살고도 죽은목숨
吳基善
한수업는食母生活
趙善伊

그림 4. 『여성지우』에서 오마니와 식모를 그려낸 방식

실제로 이러한 기획에 엄흥섭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기획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는 「처녀직공방문기」가 같은 호의 목차에서 "특별기사"로 분류되어 실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흥섭의 영향력은 작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엄흥섭의 글 「처녀직공방문기」는 엄흥섭이 어느 여

직공의 집을 찾아가 취재한 기사문으로, 엄흥섭과 여직공의 대화가 마치 희곡처럼 문답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이러한 형식은, 질문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의 방식[15]과 다르다. 엄흥섭의 이 글은 노동 현실에 대해 한층 더 상세하고 현장감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 기획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때 겨을밤
곳 서울시외어느녀직공의집
사람 긔자와녀직공

긔자 「얼마나괴로우심니까 대톄하로에몃시간동안이나 일을하시게 됨니까」
직공 「새벽에나가면 밤에야돌아옴니다 열한시간동안을 긔계에부터서 쏨작못함니다」
긔자 「단이시는공장에는 녀직공이얼마나되며 얼마나한이들임니까」
직공 「오백여명임니다 대개 십삼세이상 삼십세미만인데 나와갓흔쳐녀가삼백명이넘슴니다」
긔자 「모다 모다집에서늘단임니까?」
직공 「안이여요 대개 녀공긔숙사에잇지요 나도 요새 병이나서 나왓세요……」
긔자 「당신갓흔 처녀들중에는 교육을밧은이도잇겟슴니다그려」
직공 「보통학교를맛친이도더러잇지만 대개공부햇다는사람은 보통과

15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에서는 기자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한달에 얼마나한수입이 잇느냐고요 우리갓치 사람의 맨밋층에서 손님의밥이나 지어주고 사는사람이 무슨수입이잇겟슴닛가?"(일기자,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성」, 『여성지우』 제2권 제1호, 1930.2, 33쪽, 밑줄-인용자,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 밑줄 강조는 인용자의 것임을 밝혀둔다.)라는 서술에서 보이듯, 기자의 질문은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의 대답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를 중도에서퇴학하고 가난에부닷겨 녀공이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언문도모르는이가만허요」[16]

엄흥섭은 이 기사문에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일하는지, 공장에 여성이 얼마나 되며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교육을 받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여직공의 생활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터뷰에 응한 여직공은 최근 병이 나서 기숙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사정을 언급하는데, 이를 시작으로 기사에서는 여공들의 노동 환경과 복지, 신체와 건강에 대한 내용이 대화의 주를 이루게 된다.

긔자「당신은 엇더케 그공장에들어가섯슴니까」
직공「서울갓흔곳에서는대개 자긔가지원(志願)해서 녀공이되지만 지방에서온이들은 대개모집공(募集工)이랍니다」
긔자「모집공이라니요?」
직공「녀공모집하는사람이잇서요 그사람이도라단이며 녀공을모집해오는거야요」
긔자「네ㅡ네 그러면 녀공은누구든지 마음대로될수잇겟슴니다그려ㅡ」
직공「안이야요 한번모집된사람이라도 년령이십삼세미만이나삼십세이상이면 틀녀요 그리고 신톄검사가잇는데 톄격이허약하거나영양이불량하거나 키가적거나 시력이조치못하거나……하면틀녀요 그밧게병잇는사람(조고만병이라도)은 물론틀니구요……」
긔자「즉말하면 신톄가건강한사람이라야만 녀공이되겟슴니다그려」
직공「건강한사람이들어감니다만은 몃해 녀공노릇을하고나면 과격한운동에피로가되여 건강을 파괴식히고말지요……」(…)
긔자「혹 병자가생기는날이면 엇지됩니까?」
직공「죽을쑤어주는데요 새쌀로쑤는게아니라 식은밥남은놈으로죽을쑤어「죽이다」하고준담니다」

16 흥섭,「처녀직공방문기」, 위의 책, 114쪽.

긔자「혹 일을하다가 긔계에다치는수는업슴니까」

직공「왜업서요 흔이손가락을다침니다 갓닥하면 팔을다치고 한번다치면 병신이되지요 또갓닥하면 그큰기계속에 휩싸여들어가게됨니다 한번드러가면 그는발서 세상사람이안이람니다— 해마다—안이다달이 병신이생김니다—긔계에치여서……」

긔자「죽은사람은 엇더케함니까」

직공「긔계에다처서죽은사람말슴이죠— 죠위금(弔慰金)이라고백오십원이내를 유족에게준담니다」

긔자「녀공들의 출입은자유로 할수잇슴니까」

직공「절대로자유가업슴니다 아모리급한일이잇서도 녀공으로서성격이 매우조흔사람이라야한달동안에 한번쯤 외출을허가함니다(…)」(…)

긔자「통신내왕은 엇덧케하시게됨니까」

직공「편지도하기가퍽불편하담니다 자긔손으로 우편통에너을수업서요 세화계(世話係)에서 일일이검열을하고 공장을 욕이나 햇다거나하면 부처주지안어요 거짓말로라도 공장자랑이나하면잘붓처주어요……」[17]

인터뷰에 응한 여직공의 말에 따르면 강건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라야 여공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혹 건강을 잃거나 정해진 연령에 맞지 않게 되면 노동할 자격을 박탈당한다. 달마다 기계에 치여 다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노동 환경은 불안정하며, 외출은 자유롭지 않고 편지는 검열된다. 위와 같은 대화에 이어서 엄흥섭은 여직공에게 신문과 잡지 등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하는데, 여직공은 볼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읽을거리는 대개 몰수당하는 현실을 언급한다. 활동사진, 연극, 강연회 등을 접할 기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장에서 활동사진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접하기 어렵다고 답한다.

「처녀직공방문기」의 여직공과 「직업전선에서 일진일퇴하는 낭자군의 함

17 위의 글, 114-115, 106쪽.

성」의 13명의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그들의 취약한 삶이다. 엄흥섭이 중심이 된 『여성지우』의 기획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절박해질 수밖에 없는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삶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들의 아픈 몸[18]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여성지우』의 지면을 통해 표출된 일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독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취약성, 나아가 내 삶의 취약성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3 여성들의 「우리 오빠와 화로」 다시 쓰기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여성지우』의 기획이 제2권 제1호에서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가시화되었다면, 제2권 제2호에서는 〈여류문단〉란에 여성들의 시를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여류문단〉(120-124쪽)란에는 시 「옵바생각」, 「세상의동무들에게」, 「편지」, 「공장언니에게」, 「시집사리」가 차례로 실리는데, 이를 살펴보면 집을 떠난 오빠나 언니를 부르면서 그리워하는 내용과 형식이 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1929년 2월 『조선지광』에 발표되었던 임화의 시 「우리옵바와火爐」를 연상시킨다.[19] 〈여류문단〉에 실린 시들 중에서 「우리오빠와

18 버틀러에 따르면 욕망과 취약성의 장소로서의 몸은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또는 소수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폭력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취약성이 정치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폭력, 애도, 정치」,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47쪽; 김애령,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232쪽.

19 이하 본문에서는 현대어인 '우리 오빠와 화로'로 지칭한다. 「우리 오빠와 화로」의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우리옵바 어적게 그만그럿케 위하시든옵바의거북紋이 질火炉가 깨여젓서요 / 언제나 옵바가 우리들의 「피오니르」 족으만旗手라부르는 永男이가 / 地球에해가비친 하로의모—든時間을 담배의毒氣속에다 / 어린몸을잠그고 사온 그거북紋이 火炉가 깨어젓서요 // 그리하야 지금은 火적가락만이 불상한永男이하구 저하구처럼 / 똑 우리사랑하는 옵바를일흔 男妹와갓치 외롭게壁에가 나란히걸녓서요 // 옵바…… / 저는요 저는요 잘알엇서요 / 웨—그날 옵바가 우리두동생을떠나 그리로 드러가신그날밤에 / 연겁히 말는卷煙을 세개식이나 피우시고게섯는지 / 저는요 잘아럿세요 옵바 // (…) 그러면서도 사랑하는우리偉大한옵바는 불상한저의男妹의근심을 담배煙氣에싸두고 가지안으

화로」와 특히 그 분위기가 유사한 시 세 편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보기로 한다.

[A] 옵바생각

李國花

옵바!
발서 언제임니까? 三年前옛날이 안임니까
말업시 내게도말업시 집을 써나가신
옵바! 옵바는 너무나 無情하지안슴니까
이조고만 누의게집애가 얼마나 얼마나
애태우며 우는지 옵바는 모르심니까

옵바 나도인제는퍽 컷담니다
그때처름 옵바의게 괴롭게굴지도안을테야요
그때처름 해찰구진작란도 안는담니다

지금은 집에서 어머니한분을모시고
오즉옵바의 도라올 그날만긔다린담니다
언제나 도라오시겟슴니까 옵바 아!옵바
오날방을치우다가옵바의사진쪽을 차저내엿슴니다그려

섯서요 / 옵바—그래서 저도 永男이도 / 옵바와 또가장偉大한勇敢한 옵바친고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줍을때 / 저는 製糸機을써나서 百장의一錢짜리封筒에 손톱을뚜러트리고 / 永男이도 담배냄새구렁을내쏫겨 封筒쏭문이를뭄니다 / 只今一萬國地圖갓흔 누덕이밋헤서 코를고을고 잇슴니다 //옵바—그러나 염려는마세요 / 저는 勇敢한이나라靑年인 우리옵바와 피ㅅ줄을갓치한 게집애이고 / 永男이도 옵바도 늘 칭창하든 쇠갓흔 거북紋이火炉를사온 옵바의 동생이 아니에요 / (…) 火炉는 께어저도 火적갈은 旗ㅅ대처럼남지안엇세요 / 우리옵바는 가섯서도 貴여운「피오니ㄹ」永男이가잇고 / 그러고 모—든 어린「피오니ㄹ」의짜듯한누이품 제가슴이 아즉도 더웁슴니다 //그리고 옵바…… / 저뿐이 사랑하는옵바를일코 永男이뿐이 굿세인兄님을 보낸것이겟슴니가 / 슬지도안코 외롭지도 안습니다 / 世上에 고마운靑年 옵바의無數한 偉大한친구가잇고 옵바와兄님을 일흔 數업는게집아희와동생 저의들의 貴한동모가 잇슴니다 (…)" 임화, 「우리옵바와火爐」, 『조선지광』 제83호, 1929.2, 117-119쪽.

옵바의 키큰그모양! 그밋헤 웃고슨게
三年前내얼골이구려

옵바! 나는기다립니다
옵바의 도라올날을 어머니와함긔
어제오날- 또 來日—
옵바부듸안령히 게십시요
그리고얼는도라와 주세요[20]

[B] 世上의동무들에게
孫蕙順
나는女職工이다
나는몬지와그늘속에서
하로종일실을 푸는 가련한처녀다

世上의여러동무들이여
봄이왓다구 봄이왓다구 써들지마라
봄이왓느냐! 봄이어듸왓느냐?

이러케도工場속은몬지세상인데
이러케도工場속은그늘세상인데

오백명의우리직공들은
어제도오날도, 그리고또來日도
이러케세상과는 멀니써러진 이곳에서
한숨으로봄을마지한단다

20 이국화, 「옵바생각」, 『여성지우』 제2권 제2호, 1930.4, 120-121쪽.

아! 우리들의새날이언제나오느냐?
아! 우리들의새날이언제나오느냐?[21]

[C] 工塲언니에게
朴淑貞

工塲에게신언니
얼마나요새는 일이괴롭슴니가
아! 언니 엇지면 언니는
한번도우리집에오지도안슴니까

편지한장할시간이그러케도업슴니까
언니! 언니의얼골은발서부터
그러케변해젓슴니까!

그복슬복슬하든살결이
그러케말너바리고말엇슴니까
언니 언제나공장에서 나오서요?
그 지긋 지긋한일터에서 나오서요?[22]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가 발표된 후 이를 모방한 유사한 양식이 유행처럼 번졌다는 사실은 간간이 지적되어왔다. "동지 임화의 시와 같은 또한 그것을 모방한 군소시인들의 허다한 시"[23]라는 지적이나, "임화는 「시인이여! 일보전진하자!」는 논문을 발표하고, 자기비판을 시작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그것은 작년 2월 「조선지광」 2월호에 실린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의 출현으로 명확해졌다고 말하여도 별 폐단이 없을 것이다. (…)」 그는 자기의 센티멘탈한 내

21 손혜순, 「世上의동무들에게」, 위의 책, 121-122쪽.
22 박숙정, 「工塲언니에게」, 위의 책, 123-124쪽.
23 안막, 「맑스주의 예술비평의 기준」(『중외일보』, 1930.5.4.),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 Ⅳ 볼세비키화와 조직운동』, 태학사, 1990, 130쪽.

용에 대하여 이와 같이 사과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경향은 일시 크게 유행하게 되었었다. 박세영의 시도 그 「사등선실」 같은 시는 서사시형으로 되어 있었다."[24]라는 서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지적은 어디까지나 남성 지식인들의 입을 통해서였고, 임화의 시를 모방했다고 일컬어지는 시인들의 예시 또한 남성 시인들을 아우르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지우』에 실린 위의 이국화의 시 「옵바생각」, 손혜순의 시 「세상의 동무들에게」, 박숙정의 시 「공장언니에게」는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가 당시 여성들에 의해 다시 쓰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의 작풍이 유행의 한 조류를 형성했으며 발표 후 일 년이 흐른 1930년 무렵에도 유사한 시 창작의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실제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여성들이 「우리 오빠와 화로」라는 시를 자신의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예컨대 「우리 오빠와 화로」가 오빠와 그 친구들의 위대함을 칭송하며 오빠의 부재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누이의 목소리로 이루어졌다면, 「옵바생각」([A])에서는 오빠와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을 찾아낸 뒤 삼 년 전의 자기 모습과 현재를 대조하며, 집을 떠난 오빠에 대해 그리움을 표출하는 여성 화자의 감정과 위치가 더 선명하게 부조되어 있다. 한편, 「공장언니에게」([C])는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의 '오빠'를 집을 떠난 '언니'로 바꾸어 다시 쓰고 있다. "얼마나 요새는 일이 괴롭습니까", "편지 한 장 할 시간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 복슬복슬하던 살결이/그렇게 말라버리고 말았습니까", "언제나 공장에서 나오셔요?/그 지긋지긋한 일터에서 나오셔요?"라는 대목이 보여주듯 시에서는 집 떠난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언니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환기하면서 표출되고 있다. 이는 외출을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일마저도 어렵다고 고백했던, 엄흥섭의 글 「처녀직공방문기」에서의 여직공의 목소리를 떠올리게 한다.

한편 「세상의 동무들에게」([B])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누군가에게 보내

24 박영희, 「현대조선문학사: 제3장 방향전환기의 문예운동」(『사상계』, 1959.3),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 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493쪽.


◇女性展望車

그림 5.『여성지우』 제2권 제1호에 실린 '여성전망차'란 소개(131쪽)

는 메시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나는 여직공이다"라며 화자 자신을 명명하는 말로 시작한다. 화자는 자신이 "먼지와 그늘 속에서/하루 종일 실을 푸는" 제사공장의 여직공임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제사공장에 다녔던 「우리 오빠와 화로」의 화자를 상기시킨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다.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화자가 "오빠와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제사기를 떠나" 집에서 봉투를 붙이게 되는 것과 달리, 「세상의 동무들에게」의 화자는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오백명의 우리직공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한다. 제사공장 노동자(였던) 여성을 화자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우리 오빠와 화로」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세상의 동무들에게」는 「우리 오빠와 화로」의 오빠-누이 서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동무들에게」([B])는 시 「공장 언니에게」([C])와 함께 〈여류문단〉란에 함께 배치되면서, 공장에 다니는 언니 자신의 목소리([B])와 공장에 간 언니를 그리워하는 여동생의 목소리([C])가 거의 동시에 읽히는 효과를 자아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시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다. 이를 다음 호인『여성지우』 제2권 제3호의 〈여성전망차〉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여성지우』의 〈여성전망차〉는 독자들이 여러 방면에 대해 자유롭게 투고한 의견들을 모아둔 공간이었다. 창간 이후 독자 투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여성지우』는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예컨대 제1권 제3호에서는 〈讀者차지〉(85-90쪽)라는 코너에 독자가 보낸 편지글과 시를 실었고 〈독자통신〉(90쪽)에는 전월 호에 대한 감상을 싣고 있다. 심심치 않게 지면에 등장했던 독자 의견은,『여성지우』 제2권 제1호에 이르면 〈여성전망차〉라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면서 그 구심점을 갖게 된다. "누구든지 얼른 타셔요!/짐은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실으십시오/이 차는 사회(문예, 영화, 운동, 직업, 결혼, 연애, 음악, 시사, 유행 등) 학교(각 학교 최근 소식) 가정 등 각 방면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비평—감상—보고—희망을 싣고 새 나라를 향하여 용감하게 돌진합니다(투고대환영)"[25]이라는 소개글과 함께, 〈여성전망차〉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했다. 현실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여성지우』의 다른 독자들과 같은 찻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환상 속에서 당시 여성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여성지우』 제2권 제3호에 실렸던 〈여성전망차〉의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D] 우리 농촌에는 부녀야학회란 것이 올 봄에 창립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녀보지 못한 가갸 한 자도 모르는 여성이면 노소를 묻지 않고 입회시켰습니다. 한 달이나 지나는 동안 60명이 넘어졌습니다. 장소가 적은 관계로 오후 8시경부터 한 시간씩 2조로 나누어서 언문, 산술, 위생에 대한 필요한 이야기와 가끔 재미있는 동화와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 일독자)

[E] 전월 호 〈여류문단〉은 모두 역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혜순 언니의 「세상의 동무들에게」는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도록 힘찬 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노동계급 여성을 위하여 부른 시였던가! 동무들아 다같이 또 읽어보자! (평양K 고무공장 박순자) (…)

[F] 나는 여러 동무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동무들을 보고 모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천성으로론지? 문예를 퍽 좋아합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여류문인이 되어볼까 합니다. 일본의 『여인예술』 같은 전혀 여인들의 손으로 되는 잡지를 보시면 아실 것이지만 일본 여성은 무어라 무어라 해도 조선 여성보다 수백 보 앞섰다고 않을 수 없습니다. 문예에 뜻을 둔 동무거든 앞으로 다같이 손을

25 「여성전망차」, 『여성지우』 제2권 제1호, 1930.2, 131쪽.

잡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나아갑시다. 옛 시대의 문예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쓰고 읽을 것이었어도 지금부터의 문예는 모든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쓸 것이며 실천할 것을 쓸 것입니다.

뜻 있는 동지여! 본지를 통하여 굳게 손목을 잡지 않으렵니까! (평양 김순례)[26]

위의 인용에서처럼 〈여성전망차〉는 다양한 지역의 여성들에게서 온 글을 함께 실음으로써, 경남 진주의 독자, 평양 K고무공장에서 일하는 독자, 평양의 독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위의 예시는 『여성지우』의 여성 독자들이 문학을 향유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들은 글자를 모르는 여성들을 모아 부녀야학회를 조직하여 이야기와 동화를 함께 읽었고([D]), 지난 호 〈여류문단〉에 실린 시들을 읽고 받은 감격을 서술하면서 동무들을 향해 "다같이 또 읽어보자!"라며 재독을 권하기도 했다([E]).[27] 평양 K고무공장의 노동자임을

26 「여성전망차」, 『여성지우』 제2권 제3호, 1930.6, 88-90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農村에는 婦女夜學會이란것이 올봄에創立되엿슴니다. 학교에 단여보지못한 가갸한자도 모르는 女性이면 老少를뭇지안코 入會식혓슴니다. 한달이나 지나는동안 六十名이 넘어젓슴니다. 場所가적은관계로 午後八時頃부터 한시간식 二組로난우워서 언문, 산술, 위생에대한 필요한 이야기와 각금자미잇는 동화와 이야기를하여줌니다 압흐로잘될 可能性이만히잇슴니다. (慶南晉州 一讀者)
前月號「女流文壇」은 모다力作임니다 그中에서도 孫薰順언니[「세상의 동무들에게」의 저자명으로 볼 때 孫薰順은 孫蕙順의 잘못일 것으로 보인다-인용자]의「世上의동무들에게」는 가슴을치고 눈물이나도록 힘찬詩엿슴니다. 얼마나 우리를 勞働계급女性을 爲하야 불은詩엿든가! 동무들아 다가티 또닑어보자! (平壤K 고무工場朴順子) (…)
나는 여러동무들에게 한가지 부탁할것이잇슴니다. 여러동무들을보고 모다이런말을하는것은 안이지만 나는天性으로론지? 文藝를퍽조와함니다. 그래서 될수만잇스면 女流文人이되 여볼가함니다. 日本의「女人藝術」갓흔 專혀女人들의손으로되는 잡지를보시면 아실것이지만 日本女性은 무어라〈해도 朝鮮女性보다 數百步압섯다고 안을수업슴니다. 文藝에뜻을둔 동무거든 압흐로 다가티손을잡고 硏究하고 實踐하며 나아갑시다. 옛時代의文藝는 한가한사람들이나쓰고 닑을것이엿서도 지금부터의文藝는 모든불행한 사람을위하야쓸것이며 實踐할것을 쓸것임니다.
뜻잇는同志여! 本誌를通하야 굿게손목을잡지 안으렴니까! (平壤 金順禮)"

27 여성 독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같은 시에 대한 남성 지식인의 평가와 사뭇 대조된다. 『여성

밝히고 있는 박순자라는 여성은, 자신을 여직공이라 명명하면서 시작하는 시「세상의 동무들에게」가 자신과 같은 노동계급 여성을 위해 쓰인 것이라며, 가슴을 치고 눈물이 나도록 힘찬 시였다고 서술한다.

함께 눈여겨볼 것은 이러한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작품 창작 및 잡지 창간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점이다. 인용문 [F]에서 평양의 김순례라는 여성은 '여성들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잡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금부터의 문예는 모든 불행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야 하고 이는 실천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이어서 그는 "문예에 뜻을 둔 동무거든 앞으로 다같이 손을 잡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자고 제안하고, "본지(本誌)를 통하여 굳게 손목을 잡지 않으렵니까!"라며『여성지우』를 통해 자신과 뜻을 함께 할 동지를 규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독자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다른 지면에서도 확인된다. 독자의 의견을 싣는다는 점에서 〈여성전망차〉와 비슷하지만 편집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지상담화실〉(誌上談話室)에서 이러한 면모가 발견된다. "이 담화실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규칙이 없다. 자! 자유천지다. 독자면 누구든지 들어와 큰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 담화실이 무너져도 좋다. 자! 어서들 들어오너라."[28]라는 편집자의 서술이 보여주듯 〈지상담화실〉 또한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 중 하나였으며 독자들은 이에 뜨겁게 호응했다. 일례로 제2권 제2호의 〈지상담화실〉에서 함경남도 홍원의 한 독자는『여성지우』강독회가 지난 달 조직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이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강독회의 규약을 기초해줄 수 있는지 묻고 있다.[29] 편집진은 이 소식에 무척 반가워하면서도 강독회의 규약은 자치적으로 정하기를 제안하고 있는데,[30] 이러한 사례는『여성지우』를 매개로

지우』에 실린 이 시들에 대하여 신고송은 "이렇다고 내어놓을 만한 쾌작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고송,「최근시작개평(完)-『여성지우에 실린 여류시편』」,『조선일보』, 1930.5.14.

28 「지상담화실」,『여성지우』제2권 제2호, 1930.4, 100쪽.

29 위의 글, 99쪽.

30 "강독회가 조직되었다는 말씀은 참말로 기쁜 소식이외다. 전선삼천리방방곡곡에서 여성지우를 환영하는 소리가 빗발치듯 하는 것은 본지의 수명이 천지로 더불어 다함이 없을 것을 무언중에 증명하는 증거외다. 끝끝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강독회의 규약은 본사

한 독자들의 상호 교류가 편집진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독자들의 자발에 의한 것이었으며 매우 활기 있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상담화실〉에서 독자들은 "독자란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어떨까요"라며 독자 참여란의 대폭 증설을 요구했고, "독자소설은 왜 안 실으십니까", "표지 현상을 하신다면 그림을 하나 보내겠습니다."[31]라며 소설이나 그림 등 보다 다양한 예술작품들에 대한 창작 및 향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독자들이 『여성지우』에 요청했던 것은 남성 지식인의 계몽적 논설이 아니라, 자신들이 창작한 예술작품이 실릴 수 있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담론적 공간이었던 것이다.

『여성지우』의 지면을 통해 분출되었던 새로운 문학, 새로운 잡지에 대한 여성들의 꿈과 열정이 이후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 글에서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지우』의 독자 의견을 살피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소 분명해진 듯하다. 1930년 당시 『여성지우』의 독자들은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새로운 문예를 꿈꾸고 있었으며 "본지(本誌)를 통하여 굳게 손목을 잡지 않으렵니까!"라는 외침이 시사하듯이 엄흥섭이 주요 편집진으로 참여했던 잡지 『여성지우』를, 그러한 꿈을 실현하기에 유용한 연대의 공간이자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의 삶에 천착하고자 했던 『여성지우』의 기획은 이후 엄흥섭 소설의 주요한 문학적 자원으로도 기능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필 것이다.

4 '평이'를 부르는 누나와 오마니들의 연대

엄흥섭의 1930년대 전반기 소설들은, 민중의 실제 삶에 근접해가고자 했던 『여성지우』 기획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엄흥섭의 소설 속 인물들은 힘들고 고달

에서 조금도 참견치 아니하고 어디까지든지 해회(該會)의 의견에 맡길 뿐입니다." 위의 글, 99-100쪽.

31 위의 글, 100쪽.

픈 삶을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서로 공유한다. 다른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의 작품에서와 달리, 이들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대하거나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러한 실천을 감행하기란 엄흥섭 소설의 인물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은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바쁘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때때로 주의 깊게 들으며 몇 마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취약한 서로의 삶을 간간이 확인하는 정도의 느리고도 점진적인 방식의 연대를 맺고 있다.

엄흥섭의 작품 세계에서 이 점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마니'형 인물들이다. 1930년대 전반기 엄흥섭의 소설들에는 오마니, 행랑할멈, 어멈 등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한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고달픈 처지의 이들은,[32] 주인공이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치는 여성 노동자들로 자주 그려진다.

엄흥섭의 소설에서 오마니가 등장하는 장면은 소설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비판』, 1932.1-2)에서부터 발견된다. 고향인 M천에서 청년운동자로 활동하며 "굳게 닫힌 야학 문앞에 배움에 주린 수백 명 노동 소년소녀들이 연거푸 사흘 밤 동안을 흘린 눈물"에 굳센 파동을 받은 P군은,[33] 봉건적 인습으로

32 박정희(2021)는 당대 신문기사 및 장덕조, 유진오, 송영, 전영택 등의 소설을 토대로 192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1930년대에도 지속된 '오마니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때 '오마니 현상'이란, 1920년대 후반 일본인 유입이 격증하면서 조선인 식모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식모자리를 구하는 조선여성들이 일본인 가정의 식모인 '오마니'를 희망하면서 조선인 가정이 '식모난'을 겪게 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박정희,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식모, '오마니(オマニ)'」, 『어문학』 제153호, 한국어문학회, 2021, 161쪽. 논문에 따르면 일본인 가정은 착취와 유린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높은 급료와 下待가 없는 매력적인 공간이기도 했는데 '조선옷에 게다짝'이라는 '기형성'만 강조되어 표상되었으며, 이러한 '오마니' 형상에는 민족공동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한 피식민 남성주체들의 '불안'이 투사되어 있다. 같은 글, 156쪽.
엄흥섭이 '오마니'형 인물들을 자주 등장시켰던 배경에, 오마니와 식모 문제가 화제였던 1930년대 당대의 분위기가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엄흥섭의 경우 일본인 가정이 '높은 급료와 하대가 없는 매력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오마니와 식모 모두 고단한 삶을 살며 분투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33 엄흥섭,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비판』, 1932.1-2), 이승윤 편, 『엄흥섭 선

자기를 구속하려는 부모의 간섭을 떠나 막연한 동경을 지니고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서울에서 여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오랜 친구이자 처남인 활영에게 의지하면서 살던 그는 결국 취직에 실패하게 되고, 그동안에 아내가 두 살 된 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삶에 얽매이게 되었음을 느끼고는 우유 배달부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P군은 몹시도 불쾌하고 까닭 없이 흥분되었다.

자기가 일개 우유배달을 하는 노동자라고 개새끼까지도 업신여기나 생각하면 분함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굳게 닫힌 어떤 대문짝을 P군은 두드린다.

곤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랑할멈이 P군이 주는 젖병을 받아 들고

"아이구 오죽이나 춥겠수. 곤하겠수! 여보!"

선잠 깬 말끝을 흐리며 안으로 들어간다.

행랑할멈은 조금 만에 어제 낮에 가져온 빈 젖병과 바꿔다준다.

벌써 석 달 동안이나 이 집에 양유 배달을 하는 동안 새벽마다 단잠을 깨고 병을 받아 들어가는 이 충실한 행랑할멈! P군은 이러한 행랑할멈을 하나둘을 보지는 않았다.

그의 자전거 타이어가 창신동으로부터 동대문 안으로— 다시 종로 남북 각동을 이리저리 빠져 굼구는 동안 수많은 행랑할멈과 어멈을 보았다.

퉁실한 틀문— 높은 이층 삼층의 문화주택들을 들락거리게 되는 P군의 눈에는 날마다 게다짝 신은 '오마니'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날마다 그들과 한 마디나 두 마디쯤의 말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었다.

P군의 자전거는 종로 복판을 뚫고—남북의 각 골목을 거의 지나치다시피 한 뒤—그러나 높은 집 대문 앞에만 정거를 하는 것이다.—문화주택이 즐비하게 싸인 남산 부근을 향하여 살인적 스피드로 굼구르기 시

집』, 현대문학, 2010, 65쪽.

작한다.[34]

청년운동을 하며 노동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청년운동자 P군은 우유배달을 하는 노동자로 일하게 되자 자괴감에 빠진다. 그가 우유를 배달하면서 마주치는 존재는 수많은 행랑할멈과 어멈, 오마니들이다. P군은 오마니들과 "한 마디나 두 마디쯤의 말"을 나눌 뿐이지만, 이들은 배달 중인 그에게 살갑게 인사하며 말을 걸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행랑할멈들, 어멈, 오마니들과 P군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전체 스토리 전개와 깊은 상관이 없는 부분임에도 상당히 길게 묘사된 편이다.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에서 이들에 대한 에피소드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P군의 처남 활영이의 변화한 모습이 제시되면서 이는 오마니들에 대한 P군의 인상과 대비되는 효과를 이루게 된다.

> 활영이는 두어 달 전까지도 날마다 아침이면 자기 방에 내려와 자기와 여러 가지 살아갈 이야기도 하였고 어린것도 안아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활영이의 태도가 그전보다 아주 변해버리고 말았다.
>
> P군은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말 한마디 던지지도 않고 마치 딴 남같이 자기 부부를 대하는 활영이가 점점 미워졌다.
>
> P군은 무쪽김치를 깨물며 활영이의 한 짓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
> '흥! 그럴 터이지! 이 사회의 당당한 여학교 선생이 나 같은 일개 우유배달부와 인사를 하고 있었대서야 말이 되나!'
>
> P군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동안 여러 차례를 자기가 오후 배달을 마치고 자전거로 거리를 지나칠 때 활영이와 정면으로 여러 번 마주치게 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활영이는 얼른 먼저 외면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여 못 본 체하고 여러 번을 지나쳤던 것이다.
>
> '……이놈 아니꼬운 놈! 네 누이와 살지 않으면 그만이다!'
>
> 이런 생각까지 날만큼 P군은 구역이 났다. 불쾌하였다.
>
> 그러나 P군은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였다.

34 위의 글, 63-64쪽.

'활영이로서는 당연한 태도겠지.'

활영이의 소뿌르 근성— 또한 조그만 인텔리의 근성이 날로 똑똑하게 나타나는 것을 P군은 점점 깨달았다.[35]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P군은 우유배달부가 된 자신에게 인사 한 번 제대로 건네지 않는 활영의 변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다. 이러한 활영의 모습은 P군과 짧지만 살갑게 인사를 나누었던 오마니들의 모습과 겹쳐지고 있다.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에서 P군이 우유배달을 하면서 마주치는 오마니들의 모습이 원경에서 그려졌다면, 오마니형 인물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는 엄흥섭의 소설로는 「유모」(『중앙』, 1934.3-4)가 있다. 「유모」는 양서방이라는 인물이 누더기 뭉치 속에 싸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남의 집에서 유모로 일하는 아내를 만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이다. 아내는 담을 넘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지만, 이미 주인집 아이에게 실컷 빨렸기 때문에 젖은 잘 나오지 않는다. 서사가 전개되면서 유모의 아이는 병에 걸리게 되고, 주인집은 병든 아이에게 빨렸을지 모르는 젖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리게 할 수는 없다며 유모를 해고한다. 유모는 주인집에 있는 의사에게 자신의 아이를 진찰해주기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이미 죽어 있다. 주인집은 유모에게 젖이 잘 나와야 한다며 비릿한 돼지 국물을 억지로 먹이고, 자신의 아이가 놀란다며 한숨을 쉬지도 못하게 하며, 술에 취한 의사 앞에서 웃통을 벗은 채로 젖병에 젖을 짜 넣게 한다. 이렇듯 이 소설은 자기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주인집들 때문에 오마니형 인물이 자신과 가족들을 제대로 챙기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오마니형 인물이 엄흥섭의 소설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번견탈출기」(『예술』, 1935.7)에서이다. 최 주사의 소작농인 털보 유 영감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개 바둑이는, 어느 날 최 주사의 첩에게 팔려오게 된다. 이 소설에서 화자인 바둑이는 소작농의 집, 지주의 집, 머슴집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병쇠 어멈은 주인집이 먹고 난 찌꺼기를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남편인

35 위의 글, 67-68쪽.

머슴 박 서방의 밥상에 올린다. 바둑이는 자신이 먹어야 할 찌꺼기를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병쇠 어멈을 "인정이 없는 여편네"[36]라며 "가엽다기보다도 못나 빠진 그 꼴이 밉기 짝이 없다"[37]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최 주사의 집에서 탈출을 감행하려는 바둑이와, 최 주사의 명령으로 바둑이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박 서방은 외부의 강압으로 인해 일종의 대결 구도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장면들을 작품 전개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의 이면에, '개'와 경쟁하면서 생존하려는 어멈의 힘겨운 현실을 응시하는 작가의 시선이 있다.

한편, 「새벽 바다」(『조광』, 1935.12)는 허리를 다쳐 신경통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생계를 위해 아내를 다른 집의 오마니로 보낸 뒤 느끼는 불안을 형상화하고 있다.

> 마누라가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다.
>
> 사방은 씻은 듯이 고요하다. 아마도 새벽 두 시나 세 시쯤 된 것 같다.
>
> 최 서방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문득 이상스런 예감이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친다. (…) 최 서방은 갑자기 후회가 떠올랐다.
>
> 마누라를 당초에 그 집에 '오마니'를 다니게 한 것이 자기의 허물이라 하였다. (…) '아니…… 혹은? 여편네가 병원에 입원하고 없는 틈에 그 살결이 푸르죽죽하고 눈이 푹 꺼진 그자가 혹은 내 마누라를?'
>
> 하고 갑자기 날카로운 예감이 떠오르자 몸서리를 으스스 치며 주먹을 저절로 쥐었다 편다.[38]

오마니로 일하는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아내를 기다리던 주인공 최서방은 꿈을 꾸게 된다. 아내가 주인집 사내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을 직감하게 된 최서방이 칼을 들고 주인집을 향해 달려가는 꿈이다. 이는 언제든 타인의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미암은 주인공의 불안과 공포를 상징하며, 오마니와 그 가족

36 엄흥섭, 「번견탈출기」(『예술』, 1935.7), 이승윤 편, 『엄흥섭 선집』, 현대문학, 2010, 141쪽.
37 위의 글, 142쪽.
38 엄흥섭, 「새벽 바다」(『조광』, 1935.12), 이승윤 편, 『엄흥섭 선집』, 현대문학, 2010, 170-172쪽.

이 처해 있는 현실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엄흥섭은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에서는 오마니형 인물을 원경에서 바라보고, 「유모」에서는 주인공으로 다루며, 「번견탈출기」에서는 주인에게 속박당하며 음식을 쟁취함에 있어 오마니와 경쟁 구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새벽 바다」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 다룬다.

한편, 오마니형 인물을 화자로 내세우고 있는 작품은 엄흥섭이 1934년 9월과 11월 아동잡지 『별나라』에 발표한 소설 「平이」이다.[39] 『별나라』 통권 제77호 목차에 '소년소설'이라는 표제가 달려있는 이 소설은 '주인'의 어린아이를 돌보는 누나가 배달업에 종사하는 남동생 평이를 향해서 쓴 서간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40]

> 평아!
>
> 지금은밤이구나! 나는이제야 겨우틈을엇덧다. 왼종일매달엿든 주인의 어린아이를 나려노니 날개가돗친것가티 내몸은 갑자기 가벼워지는구나
>
> 그래 그동안너는 자젼거에 다쳣다든 다리가 얼마나 나섯니?
>
> 가튼 서울장안에 살면서도 나는너를 맘대로못맛나고 너는또한나를맘

39 1930년대 전반기 엄흥섭이 '오마니형 인물'에 주목하였고, 그 정점에 「평이」(1934.9-11)가 위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1934년 엄흥섭의 행보에 주목해볼 수 있다. 1934년 1월, 엄흥섭은 창작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가 취재에 있어 국한된 범위에 있었다고 반성하며 보다 다채로운 "생생한 인간생활의 이면"을 취재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글을 발표한다. 엄흥섭은 지주와 소작인,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일만을 취재했던 경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취재를 통해 인물의 사생활과 같은 장면을 실사적(實寫的)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지프로의 과정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독자 획득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한다. 엄흥섭, 「1934년 문학건설: 창작의 태도와 실제-취재와 실사적 묘사」, 『조선일보』, 1934.1.14. 한편 엄흥섭의 이 글과 관련해서 김재용(1990)은 1934년의 카프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며 전환기를 겪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동반자작가였던 엄흥섭이 이에 새로운 창작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재용, 앞의 글, 174-176쪽.

40 이근화(2012)는 「평이」가 그간 엄흥섭의 작품집 등에 수록되지 않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별나라』 소재 문예물이라는 맥락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평이」의 장르를 놓고 볼 때, 산문시와 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근화,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문학적 전략」, 『한국학연구』 제43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43-244쪽.

대로 못맛나보게되는구나! (…)

평아!

그동안에 너는혹주인에게 나가라는 소리나 듯지안엇늬?

한달에 삼원도 채못되는 네월급에서 깨여진 그릇갑을 물엇다구? (…)

남이 무슨 우리남매이 쳐지를 알어주겟늬글세! 더구나 우리를 부리는 사람이……

그러타고 그사람만을 미워할것도안이겟지 그사람도 처음에는 어머니 배ㅅ속에서 발가숭이로 이세상에나왓고 「엄마압바」를부르며 우리처럼 어머니의 젓꼭지를빨든사람이엿고 손가락에 고초가루만뭇어도 피난다고 놀내여울든 사람들이란다

그런사람들이 네가피를흘니고 다리를 절으며 들어가도 오히려 애처러워하기는커녕깨여진그릇갑을 월급에서짝는다구 야단만칠줄아는 독한사람으로 변해버렷지!

평아! 너도발서 삼년만지나면 스므살이니까 그까진것쯤이야잘알고잇겟지![41]

주인이 잠든 틈을 타 누나가 쓰는 이 편지는,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17세의 남동생 평이의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다. 이들 남매는 같은 서울 장안에 살면서도, 주인의 눈치 때문에 서로의 편지를 읽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각자의 삶이 고달프기에 서로 만나지 못하는 처지이다. 화자는 주인을 따라 창경원에 밤 벚꽃(“요사구라”)을 보러 가는 길에 동생이 있는 집 앞을 지났다고 말한다. “네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하고 가슴을 졸이면서도[42] 고용인들과 함께 있었기에 그대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화자는 벚꽃을 보면서도 주인의 아이를 업고 다니느라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으며 자신의 처지에 오히려 화만 났다고 말한다.

이렇듯 엄흥섭의 소년소설 「평이」는 누나가 남동생에게 자신의 일상을 기록

41 엄흥섭, 「平이」, 『별나라』 제77호, 1934.9, 23-24쪽.

42 위의 글, 24쪽.

하여 전하는 편지인데, 여동생이 오빠를 향해 쓴 편지 형식으로 된 임화의 「우리 오빠와 화로」[43]와 겹쳐 읽으면 그 특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평이」와 「우리 오빠와 화로」는 발표 시기를 놓고 볼 때 5년 정도의 간극이 있지만, 엄흥섭이 임화의 시를 염두에 두고 창작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두 글의 말미는 다음과 같이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다.

[A]	[B]
㉠ 평아! 위선 겁을내지말고 잇서라! 다른집에 또간들 또그집도 마찬가지이지만 나가라고 까지 하는 집에 부득〈잇슬것은업다 ㉡ 누나는 너의 갈만한곳을 이 이웃에 잇는 「오마니」들을 통해서 그동안 차저보마! 평아! 너와나의 남매 그리고 수만흔 이 이웃의 「오마니」 그리고 너가튼 만은남의 집일을해주는 소년! ㉢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의 이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나오겟늬? 자! 평아! 누나는 다만 그때를바라고 잇다 사랑하는동생평아! 너도 그때을 이저서는 안된다 조곰도 너를쫏는사람을무서워해서는안된다! 평아! 이만쓴다	그리고 ⓐ 옵바…… 저뿐이 사랑하는옵바를일코 永男이뿐이 굿세인兄님을 보낸것이겟슴니가 슬지도안코 외롭지도 안슴니다 ⓑ 世上에 고마운靑年 옵바의無數한偉大한친구가잇고 옵바와兄님을 일흔 數업는게집아희와동생 저의들의 貴한동모가 잇슴니다 ⓒ 그리하야 이다음일은 只今심심한 憤한事件을안꼬잇는 우리동무손에서 싸워질것임니다 ⓓ 옵바 오날밤을새어 二萬장을붓치면 사흘뒤엔새솜옷이 옵바의떨니는몸에입혀질것임니다 이럿케 世上의 누이동생과아오는 健康히 오늘날마다를 싸홈에서보냄니다

43 본고에서는 「우리 오빠와 화로」와 「평이」의 텍스트 비교 분석에 그쳤지만, 엄흥섭과 임화의 관계를 파악함에 있어 「평이」가 실린 『별나라』라는 매체를 더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별나라』는 엄흥섭과 임화가 함께 참여했던 잡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별나라』에 발표한 임화의 글과 오빠-누이-남동생 구도의 변주, 임화의 감정론에 대해서는 장문석·이은지, 「임화의 '오빠', 송영」, 『한국학연구』 제33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21-229쪽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 등에 매달닌 어린아이가 지금 밧글 나가자고 칭을〈한다,
나는 놋키실흔 이펜을 놋는다
㉤ 평아! 열흘동안에 다만 네다리의 앞흔데나 낫도록 힘써라! 너의누나는 그것만을바란다. —끗—[44]

㉥ 永男이는 엿해잠니다 밤이느젓세요 —누이동생—[45]

[A]는 엄흥섭의 소설 「평이」의 일부이고, [B]는 임화의 시 「우리 오빠와 화로」의 일부이다. 이 두 글은 모두 '누이'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오빠의 그림자를 「평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오빠의 화로」의 화자가 자신과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를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46] 「평이」에는 오빠의 용감함을 예찬하기에는 벅찬 현실을 살고 있는, 서로의 아프고 고달픈 몸을 돌볼 수조차 없는 처지의 외로운 남매만이 존재한다. 주인의 아이를 돌보는 누나가,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살아가는 17살의 소년 평이에게 담담하지만 굳센 어조로 안부를 전하고 있을 뿐이다.

[B]에서 "옵바……"(ⓐ)라는 애처로운 부름 대신에 [A]에서의 누나는 "평아!"(㉤)라고 동생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있다. [A]의 화자는 평이에게 다리를 다쳐 배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한 주인집에서 이만 나오라고 말한다. "이웃에 있는 「오마니」들을 통해"(㉡) 동생이 일할 곳을 구해보겠다는 화자의 목소리는, 엄흥섭이 「그대의 힘은 약하다-P군의 최근상」에서 보여주었던 오마니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각자의 삶을 꾸려가느라 힘에 겨

44 엄흥섭, 「平이」, 『별나라』 제78호, 1934.11, 60쪽.

45 임화, 앞의 글, 119쪽. 본고에서는 『조선지광』(1929.2)에 실린 「우리 오빠와 화로」를 인용하였는데, 이 시는 1931년 11월 『카프 시인집』에 수록되기도 했다. 『카프 시인집』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배상미, 「가부장적 억압과 혁명성의 경계에 선 여성들-『카프 시인집』 수록 시편들의 여성 청자와 화자-」, 『한국학연구』 제50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31-65쪽; 전희선, 「베스트셀러로서의 『카프시인집』 의미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61호, 한중인문학회, 2018, 29-52쪽.

46 "저는 勇敢한이나라靑年인 우리옵바와 피ㅅ줄을갓치한 게집애이고/永男이도 옵바도 늘 칭창하든 쇠갓흔 거북紋이火炉를사온 옵바의 동생이아니에요" 임화, 앞의 글, 118-119쪽.

워 폭발적이거나 강렬하지는 못해도, 비슷한 처지를 이해하고 매일 몇 마디의 인사를 주고받으며 감정적으로 연결되었던 오마니들의 존재가, 「평이」에서는 이처럼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강렬하게 호출되고 있다. "너와 나의 남매 그리고 수많은 이 이웃의 「오마니」 그리고 너 같은 많은 남의 집 일을 해주는 소년!"(㉤)이라며 자기 자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다. 이는 [B]에서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를 중심에 놓고 "오빠와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저희들의 귀한 동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임화가 누이의 목소리를 빌려 "우리 동무 손에서 싸워질 것"(ⓒ)이라며 낙관적이고 힘 있게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면, 엄흥섭은 우리들이 언제쯤 지금의 이 괴로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지 물으면서 그때를 잊지 말고 자신을 좇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격려한다(ⓒ). 또한 [B]의 경우 화자의 옆에서 "귀여운 피오닐" 동생 영남이가 여태 잠들어 있다면(ⓔ), [A]에서 누나의 등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아이는 밖에 나가자고 칭얼칭얼하며 보채고 있다(㉣). [B]에서는 오빠의 떨리는 몸에 새 솜옷을 지어주기 위해서 남은 동생들이 봉투를 붙이고 있지만(ⓓ), [A]의 화자는 "부디 몸에 탈이 안 나도록 네 몸을 네가 위해라/누가 네 몸이 귀하다고 알아주겠니? 오직 너 하나뿐이다"[47]라고 말하면서 "다만 네 다리의 아픈 데나 낫도록 힘써라! 너의 누나는 그것만을 바란다."라며 글을 맺는다(㉥). 이렇듯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을 그려내면서, 엄흥섭은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감내하는 방식의 연대를 역설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다해 스스로를 돌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주인집의 부당한 처우에 따르지 말고, 자신을 좇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덧붙인다. 이러한 「평이」에서의 연대는 서로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폭력의 지속에 저항하는 실천들로 연결될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48] 『여성지우』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엄흥섭의 소설은, 이러한 점에서 힘겨운 삶을 겪어내던 독자들이 서로의 취약성

47 엄흥섭, 「平이」, 『별나라』 제78호, 1934.11, 59쪽.

48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연대에 대해서는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버틀러는 자신과 타인의 취약성에 대한 이해가, 저항의 실천을 포함한 사회관계들을 연결하고 지지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디스 버틀러,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241-243쪽.

에 공감하고 위로 받으며 연대의 가능성을 천천히 모색하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우리 오빠와 화로」가 발표된 지 5년이 흐른 시점에서 엄흥섭이 임화의 시를 강하게 환기하는 소년소설 「평이」를 발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문인들의 전향이 가시화되고 카프 해소가 논의되었던 1934년, 프로문학의 전환기에 엄흥섭은 카프가 가장 대중적이었던 시기를 상징하는 「우리 오빠와 화로」를 호출했다. 이는 「우리 오빠와 화로」를 전유하며 표출된 여성들의 시적 목소리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여성지우』의 기획에 대한 기억들을 다시금 불러오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엄흥섭은 「우리 오빠와 화로」의 오빠와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들이 지워진 자리에, 동생의 안부를 물으며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오마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는 누나의 목소리를 채웠다. 자신만이 오빠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므로 "슬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고 위안을 삼았던 누이의 목소리는 「평이」에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엄흥섭은 환멸로 가득 찬 현실과 분투하며 살아가는 오마니들의 힘겨운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연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5 결론

지금까지 이 글은 잡지 『여성지우』와 엄흥섭의 소설을 중심으로 1930년대 전반기 문학과 연대에 대한 구상들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취재하며 민중의 현실에 보다 근접하고자 했던 잡지 『여성지우』의 기획과 지향점을 먼저 살폈다. 엄흥섭이 편집에 참여했던 제2권 제1호를 기점으로 『여성지우』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듣고 독자 투고란을 대폭 늘리는 등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획들을 선보인다. 3장에서는 이러한 『여성지우』의 기획에 여성들이 뜨겁게 호응했던 양상들을 살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오빠와 화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했던 여성들의 시, 그리고 여성이 주체가 된 새로운 문예를 꿈꾸었던 『여성지우』 독자들의 재기발랄한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

4장에서는 여성들의 삶과 현실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라는 『여성지우』의 지향점을 문학적 자원으로 삼아 창작한 1930년대 전반기 엄흥섭의 소설들을 살폈다. 대표적으로 이는 가사노동에 종사하면서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오마니'형 인물의 형상화로 나타난다. 특히 1934년 아동잡지 『별나라』에 게재된 엄흥섭의 소년소설 「평이」는 오마니형 인물이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우리 오빠와 화로」와 비슷한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는 듯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우리 오빠와 화로」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던 오빠의 그림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평이」는 배달을 하다 다친 동생에게 보내는, 동생 자신의 몸을 잘 돌보라는 당부와, 동생의 다른 일자리를 위해 오마니들과 소통해보겠노라는 누나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요컨대 이는 엄흥섭이 「우리 오빠와 화로」의 너머를 상상한 방식이었다. 카프 출신 문인들의 전향이 가시화되며 프로문학이 전환기에 놓여 있던 1934년, "위대한 오빠와 위대한 청년들"이 사라진 「우리 오빠와 화로」 너머의 시간에 엄흥섭은 카프가 가장 대중적이었던 시절을 소환하면서 민중의 현실에 기반을 둔 문학의 필요성을 현실의 타개책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이는 「우리 오빠와 화로」가 견지했던 남성중심적 투쟁 너머의, 새로운 연대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엄흥섭, 「1934년 문학건설: 창작의 태도와 실제-취재와 실사적 묘사」, 『조선일보』, 1934.1.14.

_____, 「平이」, 『별나라』 제77호, 1934.9, 23-26쪽.

_____, 「平이」, 『별나라』 제78호, 1934.11, 57-60쪽.

_____, 이승윤 편, 『엄흥섭 선집』, 현대문학, 2010, 61-412쪽.

임화, 「우리옵바와火爐」, 『조선지광』 제83호, 1929.2, 117-119쪽.

「생활전선에 나선 직업부인순례-그들의 생활과 포부」, 『별건곤』 제5권 제5호,

1930.6, 22쪽, 30-36쪽.
「여성지우」 제1권 제1~3호,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3권, 소명출판, 2014.
「여성지우」 제2권 제1~3호,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4권, 소명출판, 2014.

단행본

김애령, 『듣기의 윤리-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0, 208-234쪽.
이동희·노상래 편, 『박영희 전집 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7, 394-559쪽.
임규찬·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 Ⅳ 볼세비키화와 조직운동』, 태학사, 1990, 111-148쪽.
주디스 버틀러, 윤조원 역,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46-86쪽.
_____, 김정아 역, 『비폭력의 힘』, 문학동네, 2021, 233-255쪽.

논문

김윤진, 「해방기 엄흥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제60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 405-444쪽.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작가」, 『민족문학운동의 역사와 이론』, 한길사, 1990, 166-190쪽.
김형봉, 「엄흥섭 소설 연구-작품 경향의 변모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등천, 「해방 직후 귀환서사에 나타난 여성 귀환자 연구-엄흥섭과 손소희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9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377-409쪽.
박명진, 「김영팔의 번안희곡 〈뜻 잇는 女性〉」, 『근대서지』 제8호, 근대서지학회, 2013, 430-442쪽.
박선애, 「엄흥섭 소설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정희, 「일제강점기 소설에 나타난 또 하나의 식모, ‘오마니(オマニ)’」, 『어문학』 제153호, 한국어문학회, 2021, 155-183쪽.
박진숙, 「엄흥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6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 99-114쪽.
_____, 「엄흥섭 작품 연보」, 김인환·정호웅 외 공저,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2006』, 민음사, 2006, 342-350쪽.
배상미, 「가부장적 억압과 혁명성의 경계에 선 여성들-『카프 시인집』 수록 시편들의 여성 청자와 화자-」, 『한국학연구』 제50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31-65쪽.
소영현, 「그림자 노동의 (재)발견: 자본과 노동의 성적 분할과 계급 위계-식민지기 ‘남의집살이’ 여성의 노동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제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7, 47-79쪽.
손증상, 「카프의 연극대중화론과 아동극 〈少年 구루마꾼〉의 기획」, 『한국극예술연구』 제45호, 한국극예술학회, 2014, 35-62쪽.
신혜수, 「여성잡지 영인본 해제: 『女性之友』 창간호~제1-3호, 제2-1호~제2-3호」, 『아단문고 미공개 자료 총서 2014: 여성잡지』 제23권, 소명출판, 2014, 24-25쪽.
이근화, 「『별나라』 소재 문예물 연구-1930년대 아동문예물의 이면과 문학적 전략」, 『한국학연구』 제43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29-256쪽.
_____, 「사회주의 운동과 여성 해방의 문제-『현대부인』(1928), 『여성지우』(1929), 『여인』(1932)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70호, 우리어문학회, 2021, 93-115쪽.
이봉범, 「엄흥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승윤, 「엄흥섭 소설의 변모양상과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귀환일기」와 「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171-195쪽.
이호규, 「엄흥섭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이희환, 「엄흥섭과 인천에서의 문화운동」, 『한국학연구』 제12호, 인하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03, 168-201쪽.
장명득,「엄흥섭 소설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장문석·이은지,「임화의 '오빠', 송영」,『한국학연구』제33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01-235쪽.
장문석,「출판사 중앙인서관과 조선어문 출판물 간행」,『한국학논집』제8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1, 209-264쪽.
전희선,「베스트셀러로서의『카프시인집』의미 연구」,『한중인문학연구』제61호, 한중인문학회, 2018, 29-52쪽.

기타
고송,「최근시작개평(完)-『여성지우에 실린 여류시편』」『조선일보』, 1930.5.14.
「신간소개」,『동아일보』, 1930.2.26.
「잡지소식」,『동아일보』, 1930.10.21.

Abstract

Solidarity Beyond "My Brother and the Brazier"
: An Analysis of *Yeoseongjiwu* and Eom Heung-seop

Kim Yoonjin

This article examines the literary practices of the magazine *Yeoseongjiwu* and Korean writer Eom Heung-seop in the early 1930s. Starting from the first edition of the second volume (February 1930), which Eom Heung-seop contributed to as an editor, *Yeoseongjiwu* presents its plan for more prominently featuring the lives of women. This plan included listening to the difficulties of women in various occupations and greatly increasing the number of readers' contributions. Female readers responded to the project enthusiastically and were eager to read new literature that treated women as full subjects. In particular, the women's poems in the "Women's Literature" column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second volume (April 1930) were an appropriation to Imhwa's poem "My Brother and the Brazier" (*Joseonjigwang*, February 1929), and they focused on the difficult reality of women.

The specific conceptualization of women's lives and realities that had been presented in *Yeoseongjiwu* was also present in Eom Heung-seop's short stories from the early 1930s.

This perception of women appears in the images of “Omani”-type (a Korean domestic worker who worked for a Japanese fami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haracters who are engaged in care work and cannot actually take care of themselves. In particular, in Eom Heung-seop’s short story “Pyeong-yi,” an “Omani”-type character appears as a speaker. This short story was published in the children’s magazine *Byeolnara* in 1934. The story seems to have a narrative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My Brother and the Brazier.” However, in “Pyeong-yi,” the shadow of the brother, who was featured strongly in Inwha’s poem, can no longer be found. Instead, “Pyeong-yi” is occupied by the voice of a sister who asks her younger brother, who was injured while making a delivery, to take care of his own body and communicates with other “Omani” who are related to his younger brother’s other jobs.

In 1934, when writers of the KAPF converted one after another and proletarian literature was on the decline, Eom Heung-seop made reference to the most popular period of KAPF by publishing the short story “Pyeong-yi,” which is reminiscent of “My Brother and the Brazier,” which, in turn, suggested a new path forward that was based on the reality of the people. *Yeoseongjiwu* and Eom Heung-seop’s literary works, which were an extension of the plans of *Yeoseongjiwu*, functioned as a place for struggling readers to empathize with each other’s vulnerabilities and explore the potential for solidarity.

Key words: Eom Heung-seop, *Yeoseongjiwu*, *Byeolnara*, female readers, female workers, Omani, vulnerability, “Pyeong-yi”

본 논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